

2020년

한국웰니스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일 시 : 2020.11.30. ~ 12.6.

참가방법 : YouTube Channel '한국웰니스학회'

KOREA SOCIETY FOR WELLNESS

목차

초청강연

1. Finding Fitness in Nature	1
2. 코로나 19와 영양	2
3. 코로나 시대의 건강관리	3
4. Post COVID-19, 새로운 웰니스 관광의 패러다임 모색	4
5. COVID-19 시대 사회복지부문의 변화	5
6. 코로나 예방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6
7. 운동과 마이크로바이옴: post covid-19의 새로운 웰니스 기대	7

자유주제 발표 영상 및 포스터

1.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친수공간 인식 변화 분석	9
2. COVID-19로 드러나는 노인의 결핍의 동시성에 관한 사례연구	10
3.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 요인 및 대처에 관한 예비 연구	11
4. 다문화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12
5.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임금수준의 매개효과	13
6. 한국판 노인 낙상효능감 척도(FES-K)의 라쉬분석	14
7.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메타분석	15
8. 코로나 19 시대에 따른 대학체육실시 수업 현황분석	16
9. 신입간호사의 근무 기간에 따른 예측 요인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 입사3개월,6개월,1년근무신입간호사중심으로	17
10. 초·중학생의 신체 활동량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18
11.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연구 동향 분석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19

초청강연

번호	제목	이름	학교
1.	Finding Fitness in Nature	Adam Keath	Winthrop University
2.	코로나 19와 영양	박경애	(가야대학교)
3.	코로나 시대의 건강관리	백준형	(경인교육대학교)
4.	Post COVID-19, 새로운 웰니스 관광의 패러다임 모색	윤혜진	(배화여자대학교)
5.	COVID-19 시대 사회복지부문의 변화	이홍직	(강남대학교)
6.	코로나 예방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임연실	(성결대학교)
7.	운동과 마이크로바이옴: post covid-19의 새로운 웰니스 기대	윤소미	(국민대학교)

Finding Fitness in Nature

Adam Keath Winthrop University*

During the spring of 2020 the COVID-19 pandemic rapidly spread throughout the world. In response to the pandemic many countries began to issue public lockdown orders and travel restrictions. As restrictions limited access to physical activity opportunities and many public spaces, people throughout the world began to look for alternatives to these activities. Many sought out recreation and physical activity through our many public outdoor spaces including state, national and local parks systems. Others sought to learn about outdoor recreation activities including hiking biking and climbing. Historically these outdoor spaces and activities have been a place of refuge, and similar spikes in interest were observed during the pandemic of 1918. This indicates that now would be a perfect time to capitalize on the increased interests in these outdoor spaces and recreational activities as a means to increase physical activity. This presentation discusses how interests in these outdoor opportunities spiked during the pandemic in relation to the covid-19 lockdown timeline. Additionally, how public health professionals can

harness this interest using existing physical education teaching models and available resources from partners in the outdoor recreation spaces to direct people to outdoor physical activity opportunities moving forward beyond the covid-19 pandemic. Adventure education as a teaching model has been shown to harness aspects of fitness education as well a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while incorporating element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This positions the adventure education model as an ideal tool for physical education and health professionals to utilize moving forward as interest in the outdoors remains high and the need for physical activity in alternative spaces increases.

Key words: COVID-19, Finding Fitness, Nature

* keatha@winthrop.edu>

코로나19와 영양

박경애 가야대학교*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세계는 현재 사람-사람 간 감염이 되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감염증상은 발열, 마른 기침, 피로, 심한 폐렴, 호흡 곤란 증후군이며 심한 경우 폐포가 손상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코로나19는 전신 염증 반응 또는 사이토 카인 방출 증후군을 일으켜 면역 체계를 교란시킨다. 현재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치료방법이나 백신이 없으므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의 예방이 필수이다.

최적의 영양은 건강을 증진시켜 코로나19와 관련된 위험과 이환율을 완화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코로나19, 건강생활수칙 중 영양관리에 서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배달음식, 간편 음식, 탄산음료의 섭취가 늘 수 있어 신선한 채소, 과일 및 단백질, 수분 공급을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영양소들에 대한 논문들을 조사하여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와 식품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비타민 A, C, D, E와 같은 비타민과 아연, 셀레늄과 같은 무기질 및 ω -3 지방산은 면역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고 감염성 질환에 이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영양소의 보충이 코로나19 예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군, 고위험군(균형식 섭취가 어려운 노인 및 만성질환자) 또는 영양결핍군은 면역조절 효과를 지닌 영양소의 보충이 잠재적으로 유익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일, 채소 및 통곡물 식품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며, 면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영양소는 신선한 식품(과일과 채소), 생선, 살코기, 유제품, 물, 무기당음료, 건강한 지방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들에서 면역체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이로운 수 있다고 제시되어져 왔지만 이러한 영양소 보충은 코로나19의 예방과 관련성이 입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비타민 A, C, D, E, 아연, 셀레늄 및 ω -3 지방산 보충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군, 고위험군, 영양결핍군에게 잠재적으로 유익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되었으므로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 결핍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최적의 균형식을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Key words: 코로나1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ω -3 지방산

코로나 시대의 건강관리

백준형 경인교육대학교*

본 발표의 목적은 코로나 시대에 건강유지 방법에 대해 논하는 것이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보고된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 19는 전 세계 사람들을 패닉에 빠지게 했다. 코로나 19 확진자의 수는 3월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생겨나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반응하여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는 사람들 간의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침은 경제, 사회, 교육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리는 겪고 있다.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 19사

태가 길어지면서 생겨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야외활동이 감소해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와 동시에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났다.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인 ‘확찐자’는 우리 신체의 변화를 일컫는 말이다.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음식 섭취량에 비해 활동량이 저조하다. 이러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체중이 많이 불어나 ‘확찐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적, 신체적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신체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신체활동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Key words: 코로나 19, 코로나 블루, 확찐자, 신체활동, 홈 트레이닝

Post COVID-19, 새로운 웰니스 관광의 패러다임 모색

윤혜진 배화여자대학교*

관광은 전 세계 많은 국가의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웰니스 관광시장의 규모는 약 6,394억 달러로 전체 관광 지출의 약 16.8%를 차지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COVID-19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국가와 경제, 사회, 개인의 건강 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중이다. 특히 관광산업은 2020년 초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외여행이 중단되어 항공 및 호텔, 여행업 등이 폐쇄되거나 침체를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국가에서 여행 제한을 하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들에서 현재 관광 경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새로운 관광산업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광 행태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발제에서는 가장 큰 관광 위기를 초래한 COVID-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COVID-19로 인해 나타난 관광 행태의 새로운 욕구와 트렌드를 탐색하여 향후 웰니스 관광의 성장과 새로운 기회를 위한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본 발제에서는 COVID-19로 인한 관광산업 및 사업체의 영향을 살펴보고 국내 웰니스 관광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2020년에 발표된 국내외 정책 보고서 및 관련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COVID-19와 함께하는(with COVID-19) 관광, 종식 이후의(post COVID-19) 새로운 관광 행태 및 트렌드를 전망하고, 이에 부합하는 웰니스 관광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국책 연구원 및 관광학과 교수) 5인의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COVID-19 팬데믹으로 국제 관광은 국내 관광보다 회복이 늦을 것으로 전망되나, COVID-19 이후 희망하는 여가 활동 1위가 ‘관광’으로 나타날 만큼 여행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 관광의 제한으로 국내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COVID-19로 관광 행태와 트렌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안전’과 ‘위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람이 없는 ‘가깝고 한적한 관광지’에 대한 선호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COVID-19 이후 새로운 관광 행태로는 ‘여행 유형의 개별화/소규모화’ 가속화,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욕구’ 증대, 덜 알려진 ‘숨은 관광지’ 선호, ‘비대면 관광서비스 수요’ 증가, 근거리 단기 ‘생활관광 수요’ 증가, ‘건강하고 자연친화적인 여행수요’ 증가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COVID-19 이후, 웰니스 관광은 더욱 중요한 관광의 형태로 부상될 수 있다. 웰니스 관광은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COVID-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휴식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변화된 행태에 부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웰니스 관광 관련 조사에서 국내의 웰니스 관광 테마로는 자연/숲치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 결정요인으로는 우수한 시설과 장비, 시설의 위치 및 접근성, 수준 높은 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Post COVID-19, 새로운 웰니스 관광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연/숲 치유, 힐링/명상 등과 같은 다양한 웰니스 상품의 개발과 제공이 요청되며, 외국인 이용객을 위해 서비스의 수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또한 COVID-19로 인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비대면 온라인 예약 및 정보 제공, 홍보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며, 비대면 여행상품 및 절차, 시스템의 기준 마련 등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무엇보다 COVID-19로 안전과 위생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진 만큼 웰니스 산업 전반의 안전 관리,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웰니스 관광을 위한 시설, 전문 서비스, 교육 등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Key words: 코로나19, 웰니스 관광, 패러다임 변화

포스트 COVID-19, 새로운 웰니스의 기준: 사회복지 부문의 변화

이홍직 강남대학교*

COVID-19 상황의 장기화는 한국의 사회복지부문에 다양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한국의 사회복지부문에 있어 기존의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문제와 욕구를 야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고전적, 전통적 대응방안에 대한 재고와 함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COVID-19 상황이 초래한 사회문제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학술문헌의 고찰을 통해 복지부문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사회문제의 변화, 개입의 변화, 이에따른 쟁점 등으로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문제의 변화에 있어서는 시장의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 고용불안, 빈곤 만연, 기본적 생활 영위의 어려움 등의 경제적 측면, 사회적 소통과 연대감의 저하 등의 사회적 측면, 그

리고 구성원의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위협 등이 건강 측면에서 각각 주된 사회문제의 변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의 변화에 따른 개입의 변화는 서비스 대상자의 변화, 급여의 유형 선택의 문제, 서비스 전달 체계상의 재고, 재원의 다양화 등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쟁점에 있어서는 비 대면을 상환을 고려한 서비스 대안 마련 등의 임상적 쟁점, ICT 기술에 대한 교육 등의 행정적 쟁점, 긴급 소득보장, 원격서비스 등의 제도 개편 등의 제도적/정책적 쟁점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COVID-19 상황 하에서, 사회복지 부문에서도 불 필요한 행정적 비효율을 극복 계기의 마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혁신의 수용, 실무자의 역량강화 등을 통한 한국형 복지국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의 경주를 제언으로 전달하였다.

Key words: COVID-19, 웰니스, 사회복지, 사회문제, 해결방안

* hongjikle@kangnam.ac.kr

코로나예방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임연실 성결대학교*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건강을 유지하여 행복한 삶을 유지하려는 웰니스의 개념을 위협하고 있다. 아로마테라피는 에센셜 오일의 유효한 약리효과가 있는 정제된 오일로서 불건강한 현대인들의 체내 항상성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대체요법의 하나이다.

코로나예방을 위한 에센셜오일의 작용으로는 항바이러스, 면역증진작용, 항감염작용등이 있으며 대표적 종류로는 모든 유카리투스오일들과, 로즈마리 시네올, 로즈마리 캄파, 레몬, 라벤다 타입, 오레가노 등 다수가 존재한다.

이중 유카리투스의 산화물류인 1,8시네올 성분과, 레몬의 모노테르펜탄화수소류의 리모넨성분,

로즈마리의 모노테르펜알콜류등의 성분들이 항바이러스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코로나예방을 위한 아로마테라피의 활용으로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아로마 기습기와 아로마포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무수에탄올에 에센셜오일을 섞어 공기 중 소독을 할 수 있는 아로마 소독스프레이 제작방법, 그리고 마스크에 에센셜오일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추천한다.

이러한 아로마테라피는 에센셜오일의 다양한 종류와 화학구조와는 다르게 사용방법이 간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반드시 각자가 가진 주의사항과 금기사항을 확인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Key words: 아로마테라피, 코로나, 에센셜오일, 유카리투스, 시네올, 항바이러스

운동과 마이크로바이옴: Post Covid-19의 새로운 웰니스 기대

윤소미 국민대학교*

Covid 19로 인해 면역증진에 관심이 높다.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호르몬 조절이나 예 방접종을 통한 의학적 방법부터 균형잡힌 영양섭취와 질 좋은 수면처럼 생활습관 개선을 권장하기도 한다. 운동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세포 면역반응과 항체 면역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과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져 있어 건강과 관련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면역증진을 위한 전략으로 운동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post covid 19에 웰니스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운동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변화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Non Exercise Group(NEG, n=8, 28.6±5.3 yrs, 176.0±7.8 cm, 81.3±14.6 kg), Vigorous Intensity Exercise Group(VIEG, 30.6±5.9 yrs, 174.2±3.5 cm, 77.8±12.2 kg)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VIEG는 VO2R 60% 이상으로 주 3회, 일 30분 이상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4주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사전·사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 전 밤 9시 이후 공복을 유지하고, 아침에 Fecal sample kit에 채변을 수집하였다. 운동 유무에 따른 사전·사후 장내 마이

크로바이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Wilcoxon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VIEG에서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분류한 단위인 OTUs가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Phylum 단계에서도 VIEG에서만 Bacteroidetes가 증가하고, Firmicutes는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Species에서도 유익균인 Bacteroides_caccae, Bacteroides_dorei, Odoribacter_splanchnicus가 증가하였다(p<0.05). 반면 Clostridia의 종에 속하는 Clostridium_disporicum, Coprococcus_catus는 감소하였다(p<0.05). Proteobacteria의 종에 속하는 Bilophila_wadsworthia도 VIEG에서 증가하였다(p<0.05).

4주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 수행으로 다양성이 증가 되었으며, 유익균이 증가하고 유해균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면역세포 반응 촉진으로 면역 기능을 증가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면역과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환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 추후 구체적 연구 수행을 통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측면에서 새로운 방법의 운동처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헬스케어 측면에서 새로운 언택트 웰니스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microbiome, immune promotion, wellness, healthcare

자유주제 발표 영상 및 포스터

번호	제목	이름	학교	발표
1.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친수공간 인식 변화 분석	하재빈	아주대학교	영상
2.	COVID-19로 드러나는 노인의 결핍의 동시성에 관한 사례연구	차명희	서강대학교	영상
3.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 요인 및 대처에 관한 예비 연구	최민정 외 9명	건양대학교	자유
4.	다문화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김미진 외 1명	대구한의대학교	자유
5.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임금수준의 매개효과	김영수 외 1명	강남대학교	자유
6.	한국판 노인 낙상효능감 척도(FES-K)의 라쉬분석	황은진	국민대학교	자유
7.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메타분석	문소희 외 3명	부산대학교	자유
8.	코로나 19 시대에 따른 대학체육실시 수업 현황분석	손나래 외 1명	극동대학교	자유
9.	신입간호사의 근무 기간에 따른 예측 요인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 입사3개월,6개월,1년근무신입간호사중심으로	이승희	단국대학교	자유
10.	초·중학생의 신체 활동량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정대균 외 5명	국민대학교	자유
11.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연구 동향 분석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송호준	평택대학교	자유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친수공간 인식 변화 분석

하재빈 아주대학교*

친수공간은 공간적인 의미로는 바다 혹은 강과 같은 물과 땅이 만나는 선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수역부와 육영부를 의미한다. 근래에 친수공간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휴식과 여가의 공간,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경제적·사회적으로 도심과 항만수변지역을 연계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성장 및 고용, 인구증가, 거주기능 등의 도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법 중 하나인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친수공간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친수공간이 역할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인 단어빈도 분석, TF-IDF 분석, 연결중심도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Feldman & Dagan(1995)에 최초 언급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은 비정형의 데이터 형식인 텍스트를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유용한 패턴과 새로운 정보 추출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텍스트를 통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Ucinet6를 통해 단어와 단어 간의 연결 관계와 연결 강도, 전체 연결망에 차지하는 단어의 위치를 파악하였으며, NetDraw를 바탕으로 시각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2019년 상반기에 나온 단어빈도 분석의 결과 워터프론트(1,937건), 계획(1,565건), 조성(1,518건), 남구(1,283건), 문화(1,258건), 지역(1,182건), 부산(1,092건), 시민(1,085건), 김해(1,082건), 사업(1,042건)이 상위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상반기에 나온 단어빈도 분석의 결과 조성(3,810건), 사업(2,701건), 부산(2,205건), 친수공간(1,906건), 서울(1,873건), 계획(1,815건), 공

간(1,772건), 지역(1,694건), 추진(1,664건), 관광(1,583건)이 상위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구조에서 구조적 위치가 비슷한 노드의 연결 관계 정도를 파악하여 연관성이 높은 단어로 군집하는 방법인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9년 상반기는 ‘도시문화(도시, 문화 등)’, ‘인프라(환경, 안전 등)’, ‘파생산업(여행, 서비스 등)’, ‘공공정책(공무원, 주민 등)’, ‘지역행사(이벤트, 공유 등)’의 5개의 그룹이 형성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는 ‘인프라(신도시, 조성 등)’, ‘공공정책(코로나19, 정부 등)’, ‘파생산업(이벤트, 여행 등)’, ‘부동산(부동산, 아파트 등)’, ‘도시문화(문화, 주민 등)’의 5개의 그룹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친수공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분석하여 친수공간이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도 웰니스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행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체육, 캠페인, 이벤트, 프로그램, 개최, 축제와 같은 단어는 감소했지만, 국경 봉쇄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의 여파로 친수공간에 대한 관광, 여행과 같은 단어는 상승하였다. 둘째, CONCOR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군집 중에서 문화, 역사, 생태 등의 단어를 가진 도시문화 군집은 축소된 반면, 코로나-19, 정치, 정부와 관련된 공공정책 군집의 규모는 증가하였다. 셋째, 2020년 국내 부동산 이슈에 따라 부동산, 아파트, 발전 등의 이슈가 부동산 관련 군집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외에도 경제적 특수성, 특정지역의 SOC사업 등 특수한 변수들의 통제가 어려우며,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Key words: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 친수공간, 웰니스 공간, 코로나-19

COVID-19로 드러나는 노인의 결핍의 동시성에 관한 사례연구

차명희 서강대학교*

질병관리청의 2020년 11월 통계에 의하면 COVID-19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496명 가운데 70세 이상이 410명으로 82.66%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건강, 경제적 생활 등에 취약한 노인들은 COVID-19로 인해 결핍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본래의 결핍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절된 일상 은 불안, 스트레스, 우울, 소외 등의 심리적인 결핍상태에 빠지게 하는 추가적인 결핍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결핍의 동시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동시적인 결핍상태에 처한 노인에게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탐색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는 한편 동시적 결핍에 대처하는 도구로 삼아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탐색적 질적 단일사례 연구로 접근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도출을 위해 이론적 표집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조건은 코비드-19 이후에 음주량이 증가한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자료는 90분씩 2회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각측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연구윤리를 위해 연구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생명윤리(IRB)교육(제2019-C068706호)을 이수했다.

연구의 결과는 <내 인생을 정리해 볼 기회, 술에 절어 사는 삶>이라는 2개의 상위 범주와 7개의 하위범주인 <늙어서 눈칫밥을 먹는 나, 잘못 살았던 지난날을 후회함,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듦, 우울하여 죽음을 생각함, 불행은 혼자 오지 않음, 죽은 아버지와 같은 삶, 희망과 내일의 비전이 없는 삶>이 도출되었다. COVID-19로 경로당, 노인센터 등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관계의 상실과 결핍은 더 드러났으며 연쇄적이고 동시적인 결핍은 삶의 도피기제로 작용하고 그 도피는 대리 만족의 결과로 문제성 음주로 향했다. 술로써 현재를 잊고자 했으나 술은 점점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남용하였으며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은 첫째, 노인에게 접근성이 양호한 상담을 제안한다. 둘째, 언택트 시대에 노인은 인터넷플랫폼을 활용한 소통에 어려움이 많다. 새로워진 문명의 기기를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보조금지급과 작동방법을 교육시키기를 제안한다. 셋째, 삶의 질은 높이는 인문 학적인 강좌나 다양한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넷째,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생활비 보조금 지급의 안전망을 확충하도록 제안한다.

Key words: 결핍, 코비드-19, 소통, 질적연구방법, 좋은 삶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 요인 및 대처에 관한 예비연구

최민정 · 이현정* · 한수민^{a)} · 한수민^{b)} · 한예원 · 한혜정 · 허지원 · 홍수진 · 황시은 · 신다운 건양대학교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요인 및 대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진행한 예비연구로서 간호대학 신입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과 관련 요인 및 대처 방법에 대해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280명의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략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온라인을 이용하여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총 7개의 설문 항목을 포함한 질문지를 구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의 수준은 1-10점 범위의 점수에서 7점으로 나타난 사람이 26.4%로 가장

많았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복수응답이 가능한 상황에서 학업성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59명(56.8%), 경제적 어려움이 138명(49.3%), 대인관계 갈등이 116명(41.4%) 순이었다.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137명(48.9%)이 수면, 131명(46.7%)이 문화 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에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학업 성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수면이 가장 높았다. 이에 추후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잘 설계되고 검증된 도구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Key words: nursing student, stress, coping

* leehj18@konyang.ac.kr

다문화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김미진 대구한의대학교 · 박진희 창신대학교*

다문화 청소년은 발달과정 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격동의 시기를 겪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응의 어려움, 학업성취의 어려움, 가정경제의 어려움 등 일반 청소년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위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흡연은 일반 청소년보다 2배 이상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기 흡연은 성인기의 흡연여부와 흡연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질병을 유발하는 유의한 인자이며 청소년기에 약물남용과 정신건강, 안전하지 않은 성생활, 가출, 학교폭력과 같은 상황에 노출되는 것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는 제 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참여한 57,303명 중 ‘아버지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와 ‘어머니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둘 중 하나라도 ‘아니오’ 라고 응답한 자로 최종 7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인구사회학적요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아버지학력, 어머니학력, 거주형태, 경제상태), 건강위험행위(음주, 안전하지 않은 성생활, 약물사용, 정신건강(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이다. 자료분석은 질병관리본부의 분석 지

침에 따라 통합층(Strata), 집락변수(Cluster), 기중치(W), 유한모집단 수정계수(FPC)를 반영한 복합 표본 분석을 실시하였고, IBM SPSS Statistics 25를 이용하였으며 Rao-Scot 카이제곱 검정,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749명 중 흡연자는 41명이고 이중 학년, 학업성취, 거주상태, 음주, 안전하지 않은 성생활, 약물사용, 스트레스, 자살생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흡연은 학업성적이 낮을 때 5.62배, 가족과 함께 거주할 때 13.21배, 음주를 할 때 25.01배, 안전하지 않은 성생활 시 10.92배, 약물을 사용할 때 17.57배,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낄 때 34.11배, 스트레스를 조금 느낄 때 9.88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4.4%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흡연에는 학업성적, 거주형태, 음주, 안전하지 않은 성생활, 약물사용,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문화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Key words: 다문화, 청소년, 흡연, 건강위험행위, 정신건강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임금수준의 매개효과

김영수* · 윤승태 강남대학교

장애인 복지는 자립 생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자립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을 스스로 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며 교육을 받고 적성에 따라 선택한 일을 하며 자신의 가족을 스스로의 힘으로 부양하는 것이다.

자립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며, 그 일들을 원활히 수행해나갈 때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리고 과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을 잘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얻게 된다. 또한, 과제에 대한 난이도를 살펴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난이도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와 관련이 있다. 즉, 자립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자립 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린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다시 자립 생활을 하면서 만난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수준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임금수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교육문제, 임금수준,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3차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의 6개 장애유형과 여러 장애등급을 가진 장애인 4,577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 자료에는 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임금수준, 그리고 교육수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회귀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이 임금수준이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등급이 낮은 단계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등급이 낮은 단계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의 임금수준이 장애인의 교육수준과 자기효능감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자기효능감에 이르는 직접경로와 임금수준의 매개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 장애인의 임금수준은 교육수준과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행 수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만을 위한 입시전형의 강화와 대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평가기준에 장애인 학생수에 따른 차별을 두어 장애학생 대학입학에 대학이 적극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의 교육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0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가지는 대학진학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대학생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학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장애인의 대학생생활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의 임금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의 생활환경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임금을 받고 일하며,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금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노동조합 가입 의무나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강화하는 정책과 같은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Key words: 장애인, 교육수준, 임금수준, 자기효능감

한국판 노인 낙상효능감 척도(FES-K)의 라쉬분석

황은진 국민대학교*

낙상은 “예기치 않게 바닥, 또는 낮은 위치로 자세가 변경되는 사고”로 정의되며 우리나라는 매해 전체 노인의 약 15.9%가 낙상을 경험하였고, 64.9%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되어 낙상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Jang et al., 2017). 이러한 이유로 낙상예방을 위해 허정훈 등(2010)은 노인의 낙상효능감 척도의 국제적 버전(Fall Efficacy Scale-International; FES-I)을 우리 문화와 언어에 맞게 수정하여 한국판 노인 낙상효능감 척도(Korean Falls Efficacy Scale; FES-K)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FES-K의 각 문항들이 노인들의 낙상효능감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문항인지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의 적합도, 난이도, 곤란도, 대상자의 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75.2 ± 7.0 세) 남녀노인 185명(남: 53명, 여: 1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FES-K는 16문항 4점 Likert 척도(1점 매우 자신 있다 ~ 4점 매우 자신 없다)로 각각의 반응에 표기하도록 하여 노인들이 평가하기에 용이하게 구성하였다. 수집된 FES-K 자료는 Winsteps (Winsteps,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라쉬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항목과 대상자가 낙상효능감 평가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였으며, 각 항목의 적합도와 난이도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부적합한 항목(misfit item)의 기준은 각 항목의 내적합지수가 0.6보다 작거나 1.4보다 큰 동시에 Z 값이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경우로 정하였다(Nilsson 등, 2005).

FES-K 문항의 적합도 분석 결과, 총 16문항 중 16번 문항(사회적 행사에 참석하기)이 가장 적합도가 낮았으며, 내적합지수는 1.42로 1.4보다 크므로 16번 문항은 부적합한 문항으로 판정되었다. 난이도 분석 결과,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11번(미끄러운 표면위에서 걷기), 15번(경사진 길 걸어 올라가거나 내려오기) 그리고 14번 문항(불규칙한 표면에서 걷기)이었고, 난이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10번 문항(전화받기)이었다. 곤란도 측정 결과, 11번 문항(미끄러운 표면위에서 걷기)과 15번 문항(경사진 길 걸어 올라가거나 내려오기)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번 문항(전화받기)에 대해 가장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능력(ability) 분석 결과, Person separation은 2.78로 나타났으며 2이상으로 대상자의 차이가 잘 분리되어 있었고, 신뢰도는 .89로 나타났고, Item separation은 8.15로 나타났으며, 2이상으로 문항의 차이가 독립적으로 잘 분리되어 있었고, 신뢰도는 .99로 높은 신뢰도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판 노인 낙상효능감 척도를 적용하여 라쉬분석을 적용하여 적합한 항목을 확인하였다. 총 16문항 중 16번 문항인 ‘사회적 행사에 참석하기’는 부적합한 문항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11번, 15번 문항의 난이도가 높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후 임상에서 노인의 낙상효능감 평가를 위해 FES-K의 문항 확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노인, 낙상효능감, 설문지, 라쉬분석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

문소희 · 류아영 · 조미영 · 유순화 부산대학교*

매년 아동학대가 늘어남으로 인해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부모교육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적 관점과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관점이 있으며, Rossi(1986)는 예방적 관점의 교육이 효과적임을 보고했다. 이처럼 부모가 되기 이전의 신혼부부와 대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가르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효율적인 준비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예비부모교육이라 한다(정옥분, 정순화, 2016).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프로그램마다 운영특성이 다르며, 결과 또한 다르게 나타나 개별 연구결과들의 효과성을 통해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효과적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연구들의 종합적인 효과성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들의 전체적인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 참여 대상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운영특성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본 연구는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누리미디어(DB-PIA), 학술정보원(KISS), 구글스콜라에서 2020년 11월까지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학술대회, 연구보고서를 검색하였다.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집단’을 주제로 수집한 결과, 검색된 논문은 총 88편이었다. 이 중에서 동일한 주제 논문, 집단 프로그램 이외의 논문, 예비부모 대상 이외의 논

문, 메타분석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논문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22편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은 R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표준화된 평균차 변화 효과크기를 산출하였으며, 랜덤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딩한 자료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22편의 연구논문에서 총 135개의 효과크기 사례수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전체 효과크기는 0.94로 나타나 큰 효과크기로 해석할 수 있다(Cohen, 1988). 대상에 따른 평균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대상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대상(2.93)이 가장 효과가 컸다. 운영특성(총 회기 수, 주당 운영횟수, 전체 기간)에 따른 평균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모두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회기 수에 따른 평균효과크기는 12-13회기 프로그램의 효과크기(1.26)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었고, 주당 운영횟수에 따른 평균효과크기는 주2회(1.11)와 주1회(0.94) 장기 프로그램은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전체 기간에 따른 평균효과크기는 13주 이상(3.15)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상일 때, 그리고 회기 수가 12-13회기일 때, 주2회와 주1회 장기 프로그램일 때, 전체 기간이 13주 이상일 때 큰 효과를 보였다. 추후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시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ey words: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메타분석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체육 비대면 실기수업 현황 분석

손나래* · 유인영 극동대학교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코로나19)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231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20.11.26).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 1-3단계를 실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 대학교는 대부분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체육 실기수업은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체활동을 통하여 개인 체력증진 및 협동심 등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지만 비대면 강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체육 비대면 실기수업 현황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참여자는 서울특별시 A, B대학교, 경기도 C대학교 충청북도 D, E, F대학교, 부산광역시 G 대학교에 체육학 전공생 총 354명이다. 연구도구는 NAVER을 활용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비대면 체육 실기수업 형태”, “비대면 체육 실기수업 좋은 점”, “비대면 체육 실기수업 어려운 점”, “비대면 체육 실기수업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내용분류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비대면 체육 실기수업 형태는 “학교 LMS” 5개 대학교, “Zoom” 1개 대학

교, “교수채량 BAND(밴드, Daum(다음 등)” 1개 대학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수님의 체육 실기 동영상” 243명(68.6%), “교수님의 실시간 Zoom” 93명(26.2%), “기타(유튜브 등)” 18명(5%)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대면 체육 실기수업에 따른 좋은 점으로 “강의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아서 좋다(1주, 2주 안에 수업 시청)” 240명(67.7%), “코로나 위험에 벗어날 수 있어서 좋다” 75명(21.1%), “교통비를 아껴서 좋다” 34명(9.6%), “기타” 5명(1.4%)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대면 체육 실기수업에 따른 어려운 점으로 “체육 실기를 습득할 수 없다” 174명(49.2%), “실기 수업을 하지 않아 등록금이 아깝다” 96명(27.1%), “교수님의 실기 수업 영상이 너무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80명(22.6%), “기타” 4명(1.1%)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대면 체육 실기수업 보완해야 할 점으로 “체육 실기과목 동영상에 대한 유익한 콘텐츠” 184명(51.9%), “학교 및 교수님의 카메라 및 마이크 개선” 98명(27.7%), “사회적 거리를 확보한 대면강의” 60명(16.8%), “기타” 12명(3.4%)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대학체육 비대면 실기수업은 학생중심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과 촬영장비 개선을 통한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Key words: 코로나19, 대학체육, 비대면 실기수업

신입간호사의 근무기간에 따른 예측요인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 입사 3, 6, 12개월 근무 신입간호사 중심으로

이승희 단국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입간호사의 근무 기간에 따른 희망, 외상 후 성장,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지각된 건강상태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신입간호사의 바람직한 업무 적응을 위한 근무기간별 효과적인 관리방안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서울과 경기도, 충남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신입간호사의 근무 기간에 따른 희망, 외상 후 성장,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지각된 건강상태 정도를 파악하고 외상 후 성장,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지각된 건강상태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성 조사연구로, IRB 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실시하였고 SPSS program 22.0 version을 이용하였으며 총 176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상자의 희망 정도는 평점은 4.6 ± 0.96 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고, 외상 후 성장 정도는 평점은 2.5 ± 0.65 점, 사회적 지지(상자) 정도는 평점은 3.8 ± 0.57 점,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평점은 3.3 ± 0.46 점, 지각된 건강상태 정도는 평점은 3.1 ± 0.83 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근무 기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건강상태($F=3.63, p=.029$)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Group2(4-6개월)와 Group3(7-12개월)의 평균치는 0.33이고 유의

확률은 .032로 확인되었다. 반면 희망($F=1.81, p=.167$), 외상 후 성장($F=.62, p=.539$), 사회적 지지($F=.16, p=.854$), 직무스트레스($F=.22, p=.80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33.38,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설정계수(R^2)는 .37로 나타났다. 희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외상 후 성장($\beta=.33, p<.001$), 사회적 지지($\beta=.32, p<.001$), 지각된 건강상태($\beta=.22, p=.001$)순이며, 외상 후 성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beta=-.04, p=.58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신입간호사의 근무기간에 따라 건강상태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간호관리자는 신입간호사의 바람직한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근무기간별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개발하여 이직을 예방함으로써 간호인적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희망, 외상 후 성장,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지각된 건강상태는 개인의 정서와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반드시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신입간호사가 주어진 간호업무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병원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Key words: 신입간호사, 근무기간, 희망, 외상 후 성장, 지각된 건강상태

초·중학생의 신체 활동량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정대균 · 황재구 · 이주영 · 손소망 · 이윤빈 · 이대택* 국민대학교

본 연구는 초·중학생의 학교 체육수업에 따른 신체 활동량의 연구 동향에 대한 각종 현상을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통해, 학교체육 교육환경의 개선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요인을 선별하여 신체 활동량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국내 연구논문의 키워드를 토대로 국내 학술사이트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 Korea Citation Index(KCI)에서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구 중 적합하지 않은 연구를 제거하여 총 750편을 선정하였다. 키워드 기반 지식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국문 키워드를 영문으로 변환하였으며, 같은 의미로 사용되거나 다른 단어로 표기된 키워드는 하나의 단어로 통일하여 중복 키워드 593개, 독립적인 키워드 29개로 산출하였다. 최종 정제된 키워드를 KrKwi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출현(co-occurrence) 빈도를 구성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에 사용할 행렬(Matrix)을 형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공출현 빈도 11회 이상의 593개 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연결 중앙성과 링크의 시각자료인 지식지도(Knowledge map)를 위해 NetMiner 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4회 이상의 공출현 빈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산출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키워드 분석에서 ‘체력’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 ‘자기효능감’과 ‘신체조성’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신체적 자아개념’, ‘사회적’, ‘즐거움요소’, ‘비만’, ‘참여동기’, ‘학교생활만족’, ‘운동정서’가 학교체육 연구에서 높은 빈도를 가지고 있는 상위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결 중앙성 지수는 ‘사회성’과 ‘체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는 ‘자존감’, ‘참여만족도’, ‘춤’, ‘참여동기’, ‘비만’, ‘신체적자아개념’, ‘신체조성’이 세 번째로 ‘행복’이 학교체육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닌 상위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나타난 결과는 학교체육에서 신체 활동량과 관련된 주요한 관심 영역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초·중학생의 학교 체육수업에서 신체 활동량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학교체육 수업 시 운동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Key words: 초등학생, 중학생, 신체활동량, 네트워크분석, 학교체육

* dtlee@kookmin.ac.kr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MCST)와 국민체육진흥공단(KSPF)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No. S2020-04-02)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연구 동향 분석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송호준 평택대학교*

발달장애는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중증장애에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아동기에 발현된 장애의 문제들이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는 등 적응 상에 어려움을 겪는다(김진숙, 2015). 최근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로 주목받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2003년부터 있어왔으나 지적장애 혹은 일반인의 자아존중감 연구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로 발달장애의 경우 인지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연구에 어려움 있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 등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남현희 외, 2007). 발달장애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가 있다라도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보다는 가족의 삶의 질 혹은 만족도 연구(한상일, 정영숙, 2008)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인식 정도 및 그 영향요인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자아존중감 연구의 일반적 동향과, 연구대상을 비롯한 연구의 내용을 살펴본 필요성을 갖는다

방법: 본 연구는 국내 게재된 학술논문으로 국한하여 분석하였으며, 2003년 처음으로 게재된 취학전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향상에 관한 논문을 시작으로 2020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자영, 2020)과 비장애 형제의 부담과 자존감에 관한 연구(황혜원, 2020)의 논문까지 총 48편의 연구 논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검색방법은 국내 전자데이터 베이스인 RISSA(학술연구정보서비스), KCI(학술인용색인), KISS(한국학술정보원)를 비롯하여 구글 등을 통한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지적장애” 과 “정신지체”, “자폐”, “발달장애” 과 “자아존중감”, “자존감” 을 주제어로 검색하였으며, 검색된 자료는 제목, 키워드 및 초록과 함께 경우 따라 논문을 직접 열람 후 통해 선정하였다. 분석틀은 연구의 일반적 동향(연도 별 논문의 수, 분야별 논문 분포), 연구대상별 분포를 확인, 연구방법(질적, 실험, 조사연구, 문헌),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중재방법과 종속변인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분포를 확인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빈도 분석과 백분율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 관련 논문은 특수교육학, 교육학 등 사회과학 논문들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대부분은 사회과학이 40편(83.5%), 복합학 2편(4%), 자연과학, 의학, 의학, 예술체육학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었고, 중분야에서는 특수교육이 10편(21.5%), 교육학과 10편(21.5%), 사회과학이 6편(12.5%), 심리과학이 4편(8.5%) 순이었다. 연구대상으로는 성인(43%), 청소년(41%), 아동(16%) 순 이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실험연구(66.7%) 및 조사연구(23%)가 주를 이루었고 질적연구(8.3%)와 문헌연구(2%)로 나타났다. 실험연구는 상담, 발달재활, 교육활동으로 분류되었고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종속변인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사연구는 2008년에서 2020년까지 총 11편의 조사연구가 발표되었고, 조사연구의 내용은 자아존중감과 가족관련, 지역 및 학교 적응, 생활만족에 대한 연구로 분류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론: 첫째,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 관련 논문은 특수교육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지고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연구의 대부분은 청소년과 성인이며, 발달재활 중재에 비하여 교육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발달장애인이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에는 실험연구와 조사연구가 대부분이고 가족, 지역 및 학교 적응, 삶의 만족도로 접근하고 있으며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후속 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이 아동기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동기 자아존중감 발달의 중요성과 더불어 생애 걸친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제시 할 필요성을 갖는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교육 및 상담프로그램과 아울러 당사자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및 모형 개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Key words: 발달장애인, 자아존중감, 연구동향

* hjsong@ptu.ac.kr